

광주·전남 선수단, 장애학생체육대회 선전

광주 메달 45개로 목표 초과 달성...안성빈 3관왕·김유은 2관왕 전남 메달 55개 획득...조경인·노연희 등 육상서 2관왕 3명 배출

전국 장애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13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한 광주·전남선수단이 선전을 펼쳤다.

광주 선수단 98명은 최근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폐막한 이 대회 배드민턴, 육상 등 8개 종목에서 모두 45개 메달(금 9, 은 16, 동 20)을 획득했다. 목표표로 잡았던 42개 메달을 초과 달성했다.

안성빈(풍암고)은 수영 3관왕, 김유은(신용중)은 육상에서, 김명철(광주자연과학고)은 조정에서 각각 2관왕에 올랐다.

광주는 대회 마지막 날 배드민턴 혼성 복식 IDD 중고등부에서 송형우(대자중)·정다은(광주선우학교)조가 김현석·김희수(충남)조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육상 등 7개 종목에 걸쳐 91명이 출전한 전남은 모두 55개 메달(금 13, 은 20, 동 22)을 따냈다.

전남은 육상에서 2관왕 3명을 배출하는 등 필드 종목에서 선전했다.

조경인(인성학교)이 초등부 높이뛰기와 멀리뛰기에서 2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노연희(은광학교)는 초등부 100m, 200m에서 2관왕에 올랐다. 장주일(덕수학교)도 남고부 200m, 800m에서 금메달을 2개를 쓸어들었다.

조경인과 고등부 800m에서 '금빛 질주'를 선보인 장주일은 대회 3연패 대기록을 작성했다.

유지성(여수석유화학고)은 남자 개인전 BC에서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장애인 보치아의 미래로 각광을 받았다.

그는 보치아 입문 3개월 만에 첫 참가한 전국대회에서 쟁쟁한 선수들을 따돌리는 패기를 선보였다.

김현성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김은래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도록 사·도 교육청과 협력해 장애학생 체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영 3관왕 풍암고 안성빈(왼쪽)



광주 첫 금메달을 딴 수영 김지윤(맨 오른쪽)

이상혁, 올 세번째 국제대회서 '우승 점프'

세이코 골든 그랑프리 1위

'스마일 점퍼' 이상혁(27·용인시청)이 2023 세이코 골든 그랑프리에서 우승했다.

앞선 두 차례 국제대회에서 2위를 한 이상혁은 올해 세 번째 국제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상혁은 21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نيسان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9를 넘어 1위를 차지했다.

2위 조엘 바텐(호주)의 기록도 2m29였지만, 이상혁은 1차 시기에서, 바텐은 2차 시기에서 2m29를 넘어 순위가 갈렸다.

세계육상연맹이 '콘티넨탈 투어 골드 등급'으로

분류한 권위 있는 대회인 골든 그랑프리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건 이상혁이 처음이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트랙&필드 사상 최고인 4위(2m35), 2022년 세계실내선수권 우승(2m34), 2022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우승(2m33), 2022 유진 실의 세계선수권 2위(2m35) 등 한국 육상의 새 이정표를 여러 개 세운 이상혁은 요코하마에서도 '최초 기록'을 작성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9명 중 7명이 2m15에서 경기를 시작했지만, 이상혁은 2m15를 패스했다.

2m20을 1차 시기에서 가볍게 넘은 이상혁은 2m25도 패스하고, 2m29에서 이번 두 번째 점프를 했다.

이상혁은 2m29도 1차 시기에서 넘었다.

2m29가 끝난 뒤 남은 점퍼는 이상혁과 조엘 바텐(호주), 단 두 명이었다.

이상혁이 단 두 번의 점프로 2m20과 2m29를 넘은 것과 달리 바텐은 2m25와 2m29를 모두 2차 시기에서 넘었다.

이상혁은 2m32에 도전해 1~3차 시기에서 모두 바를 건드렸다.

바텐은 2m29에 성공한 뒤, 바를 2m32가 아닌 2m35로 높여 개인 최고 기록(2m35) 경신에 도전했지만 1~3차 시기 모두 실패했고, 이상혁의 우승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머리 37점 맹활약... 덴버, NBA 챔피언결정전까지 1승 남아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크립토타컴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NBA 서부 컨퍼런스 결승(7전 4승제) 3차전 원정 경기에서 덴버 너기츠의 가드 자말 머리(왼쪽)가 LA 레이커스의 데니스 슈로더를 뚫고 드리블을 하고 있다. 119-108로 승리한 덴버는 1~3차전을 풀어 담아 팀 최초의 챔피언결정전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 뒀다.

/연합뉴스

U-20 월드컵 23일 프랑스와 1차전 김은중호 '압박과 스피드'로 맞선다

FIFA "한국 키플레이어는 김지수"

'어게인 2019'를 기치로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나서는 김은중호 '난작' 프랑스를 상대로 16강 진출의 초석 쌓기에 나선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축구 대표팀은 한국시간 23일 오전 3시 아르헨티나 멘도사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아트사키' 프랑스와 대회 조별리그 F조 1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프랑스와 U-20 대표팀 역대 전적에서 1승 3무 4패로 밀리는 상태다. 2019년 3월 스페인에서 치른 친선전에서 1-3으로 패했던 게 최근 맞대결이다.

U-20 월드컵 무대에서는 한국과 프랑스가 조별리그에서만 두 차례(1997년 2-4 패, 2011년 1-3 패) 맞대결해 한국이 모두 졌다.

1997년 대회 때는 프랑스의 티에리 앙리와 다비드 트레제게에게 2골씩 내주는 가운데 박진섭(부산 아이파크 감독)이 2골을 책임지며 분전했다. 2011년 대회에선 김영욱(대전)이 1골을 터트린 바 있다.

직전 2019년 대회에서는 프랑스가 16강에서 탈락한 가운데 한국은 결승까지 올라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갖고 있다.

김은중 감독은 2019년 대회 준우승 신화의 재현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상태다.

김은중호의 21명 태극전사는 4년 전 선배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또 한 번 '행복한 사고'를 치겠다는 각오뿐이다.

조별리그 통과를 현실적인 목표로 정한 김은중호는 프랑스와 조별리그 F조 1차전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김은중 감독은 4-3-3 전술을 기본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승부수로 내세운다.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입성하기 전에 김은중호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흘 동안 전지훈련을 치르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대표팀은 지난 14일에는 상파울루 아마추어팀인 위너스FC를 상대로 이승준(서울)과 이찬욱(경남)의 득점으로 2-1 승리를 거뒀고, 16일 팔메



김은중 감독

이라스 U-20 클럽과 두 번째 평가전에서 이승원(강원)과 멀티골을 작성한 이영준(김천)의 활약으로 3-0 대승을 따냈다.

이승준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인 이을용(용인시축구센터 총감독)의 아들로도 유명하다.

여기에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브렌트퍼드의 러브콜을 받은 키 192cm의 장신 수비수 김지수(성남)가 포백의 중심을 잡으면서 대표팀의 뒷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FIFA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F조 1차전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키플레이어로 김지수를 꼽았다.

한국은 프랑스와 경기 후 26일 오전 6시 운두라스, 29일 오전 6시 감비아와 차례로 맞붙어 16강 진출을 다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울지마 엄마
- 2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울지마 엄마
- 3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울지마 엄마
- 4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 5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드림, 극장판 리틀 슈퍼맨 샘샘
- 6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슬픔의 삼각형,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 9관 극장판 핑구는 웃말라, 동물소환닌자 배꼽수비대, 가산 비람의아이
- 7관 세네카를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 8관 세네카를 스즈메의 문단속, 존 워 4, 스트리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 III 이충섭, 도쿄로 보낸 편지'
일시 :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6



즐거움 문화산책